

Original Research Article

To think might not be a great thing. However, if you think “I can!”, you will be able to become the wonderful man! (Tcheonzamun 193rd-208th)

Hyeonhi Regina Park¹, Sangdeog Augustin Kim^{2*}

¹(Former address) Department of Elderly Care and Welfare, Joongbu University, Kumsan, Republic of Korea

²(Former address) Department of Companion Animal and Animal Resources Science, Joongbu University, Kumsan, ChungchongNam-do, Republic of Korea (ROK)

***Corresponding Author:** Sangdeog Augustin Kim

(Former address) Department of Companion Animal and Animal Resources Science, Joongbu University, Kumsan, ChungchongNam-do, Republic of Korea (ROK)

Article History

Received: 19.01.2025

Accepted: 25.02.2025

Published: 03.04.2025

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that Tcheonzamu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n English) was utilized in ancient China. This Tcheonzamun (千字文) book was used for children’s education for Chinese character, and it was used both in China and in Korea (Dallet, 1874). This work concerns the translation of a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193rd-208th). And this study was done in order to translate a Tcheonzamun poem. The range of this study is (Tcheonzamun 193rd-208th). The title of this study is ‘To think might not be a great thing. However, if you think (念) “I can!”(克), you will be able to become (作) the wonderful man (聖)! (Tcheonzamun 193rd-208th)’. The next is the result of this translating work on the poem of (Tcheonzamun 193rd-208th).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193-196 墨(Mug) 悲(Bi) 絲(Sa) 染(Yeom). My husband! Do you want to rest calmly (悲) when you write the Chinese characters with the traditional black ink (墨)? My husband! During the writing on the paper, you are afraid of being dirty (染) of clothes (絲) with the black ink. 197-200 詩(Si) 讚(Tchan) 羔(Ko) 羊(Yang). My husband! On the contrary to your awkward attitude, the content of your writing (詩) is very active. My husband! Your writing shows (讚) the joyful playing of lamb (羔) and the pleasant step of sheep (羊). 201-204 景(Gyeong) 行(Haeng) 維(Yu) 賢(Hyeon). (This is the third line. And this line expresses the appearance of sheep (羊) style of the second line.) My husband! To have a trip (行) and to travel (景) is good for maintaining (維) your intelligence (賢). 205-208 克(Keug) 念(Nyeom) 作(Zag) 聖(Seong). (This is the fourth line. This line shows the behavior of lamb (羔) style of the second line.) My husband! To think might not be a great thing. However, if you think (念) “I can!”(克), you will be able to become (作) the wonderful man (聖)!.

Keywords: To think might not be a great thing. However, if you think (念) “I can!”(克), you will be able to become (作) the wonderful man (聖)! (Tcheonzamun 193rd-208th).

INTRODUCTION

Copyright © 2025 The Autho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CC BY-NC 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for non-commercial use provided the original author and source are credited.

CITATION: Hyeonhi Regina Park & Sangdeog Augustin Kim (2025). To think might not be a great thing. However, if you think “I can!”, you will be able to become the wonderful man! (Tcheonzamun 193rd-208th). *South Asian Res J Human Soc Sci*, 7(2): 85-88.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that Tcheonzamu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n English) was utilized in ancient China. This Tcheonzamun (千字文) book was used for children's education for Chinese character, and it was used both in China and in Korea (Dallet, 1874). Traditionally Koreans thought that Chinese people made this masterpiece (Tcheonzamun) (Han, 1583). However, recently, several researchers found that Tcheonzamun is well translated on Korean grammar (Park *et al.*, 2021) and is translated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Kim, 2023). In the present work, the poem of (Tcheonzamun 193rd-208th) will be translated on the basis of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MATERIALS AND METHODS

Tcheonzamun (千字文) is called in English a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This work concerns the translation of a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193rd-208th).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The first method is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on Tcheonzamun (Kim, 2023). The second method is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On the present work, the second method will be used for the translation.

RESULTS AND DISCUSSIO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And this study was done in order to translate a Tcheonzamun poem. The range of this study is (Tcheonzamun 193rd-208th). The title of this study is 'To think might not be a great thing. However, if you think (念) "I can!" (克), you will be able to become (作) the wonderful man (聖)! (Tcheonzamun 193rd-208th)'. The next is the result of this translating work on the poem of (Tcheonzamun 193rd-208th).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193-196 墨(Mug) 悲(Bi) 絲(Sa) 染(Yeom).

My husband! Do you want to rest calmly (悲) when you write the Chinese characters with the traditional black ink (墨)? My husband! During the writing on the paper, you are afraid of being dirty (染) of clothes (絲) with the black ink.

197-200 詩(Si) 讚(Tchan) 羔(Ko) 羊(Yang).

My husband! On the contrary to your awkward attitude, the content of your writing (詩) is very active. My husband! Your writing shows (讚) the joyful playing of lamb (羔) and the pleasant step of sheep (羊).

201-204 景(Gyeong) 行(Haeng) 維(Yu) 賢(Hyeon).

(This is the third line. And this line expresses the appearance of sheep (羊) style of the second line.) My husband! To have a trip (行) and to travel (景) is good for maintaining (維) your intelligence (賢).

205-208 克(Keug) 念(Nyeom) 作(Zag) 聖(Seong).

(This is the fourth line. This line shows the behavior of lamb (羔) style of the second line.) My husband! To think might not be a great thing. However, if you think (念) "I can!" (克), you will be able to become (作) the wonderful man (聖)!

The next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in Korean language on 17 May 2013.

김 종기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서 병자 성사를 주셨습니다! - 열심히 뛰고 놀아야!

32 김 종기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서 병자 성사를 주셨습니다! - 수술 대기실에서, 수술 회복실에서....
“용기를 내세요.”라고 수술 직전에 용기를 주신 정 인순 이레나 수녀님, 정말 고맙습니다. “독수리가 오십년 사는 데, 또 다른 오십년을 살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저희 레지오 마리아 에서 좋은 훈화를

해주신 남 은영 마리후고 수녀님, 고맙습니다. 우리 본당의 형제 자매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제 아내 현희 레지나와 함께 병원에 가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프랑스에서 오신 우리 백 요한 신부님께 고백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내동 본당의 전임 신부님이신 김 중기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서 우리집 아이들이 옆에 있는 가운데 수술 며칠전에 병자 성사를 주셨습니다! 따뜻한신 신부님, 고맙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이틀 뒤, 수술받기 위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는 환자 운반용 침대차에 누웠습니다. 병원 수녀님의 기도를 받고, 현희가 저의 대학때 제일 친한 친구인 한표에게 전화를 해서 올라와주었고, 처남이자 친구인 성식이 부부를 뒤로 두고 수술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다른 환자들은 수술실로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정말 아주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간단한 기도를 하며 기다립니다. 현희에게 뒤에 들으니 약 50 분 정도의 대기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꽤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저와 제 아내의 결혼생활의 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보화엄니의 반대로 참 어려웠던 결혼, 드디어 결혼하고 서울의 작은 방한칸 월세방에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저는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무렵 우리 큰딸 지은아가다가 태어났습니다. 지은이가 조금 크자 처형들이 “느그 엄마아빠 너 낳으려고 펍 고생하며 결혼했다 잉!”라고 하시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현희랑 함께 일본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들 근주 대건안드레아가 태어나서 참 좋았습니다. 그때 막내딸(현희)의 아기 수발하러 일본에 와주셨던 장모님 희례사라 엄니는 우리 두사람에게, “또 애기 생기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썸처럼 제 아내 현희는 그곳에서 셋째를 가졌습니다. 한국에 한번 다녀간 뒤에, 2년 반동안 집세를 못갚더니 무뚝뚝한 우리 일수요셉 아버지가 전화에서 “언제 한번 안 오냐?”라고 저를 기다리시기에, 애기를 가진 현희와 함께 지은과 근주를 저희 엄니아부지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우리 둘째 딸 지아 안나를 낳고 기뻐하던 일, 저는 학회 참석겸 한국에 와서 아내와 아이들 셋을 데리고 다시 일본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셋째딸 왈가닥 로사를 낳고- 그때 저는 참 가난한 시간강사 시절이었는데요-, 다시 몇년 뒤에 막내딸 소화 데레사를 낳았고요. 이어서 아이엠에프 어려운 때였는데, 제 아내랑 다섯 아이들 모두 데리고 프랑스에 1년간 공부하러 가게 되었지요. “참, 기쁨의 시간들이었다.”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현희랑 함께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생각이, 제가 수술 대기실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두렵고 무서운 시간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윽고 “김 상덕 환자분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몇 시간 동안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한참만에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요.”라고 했더니, 제 옆에 있던 수술실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시면 됩니다.” 하고 말해줍니다. 이어서 제가, “제 아내는 어디 있나요?” 그 선생님이 “지금 병실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병실에서 환자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해주셨어요. 병원 연결을 해주신 신 태수 막달레나 자매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요. 주님,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 박 현희 레지나와 김 상덕 아오스딩 부부 드립니다, 2012년 6월 23일 아침. 33 열심히 뛰고 놀아야!.....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12년 6월 24일 세례자 요한 축일. (묵비사엄) 墨() 悲(-) 絲(-) 染(V) 먹물(墨)을 쓰고자 할 때, 행여 이 먹물이 실(絲)에 튀겨 그 옷감을 버릴세라(染) 마음을 조이면서(悲) 되도록이면 가만히 있을려고 하지요. (시찬고양) 詩(-) 讚() 羔(-) 羊(/). 그런데, 그 쓰기 싫어하며 먹물을 갈아 겨우 겨우 쓴 글의 내용은(詩), 뜻밖에도 양이 노는 모습을(羊), 어린양이 힘차게 뛰노는 모습이(羔) 보기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讚). (경행유현) 景(V) 行(/) 維(/) 賢(/). 마음에 쏙 드는 경치를 구경하며(景) 다니는 것이(行) 그 사람의 현명함을(賢) 지켜주는 것이 되니(維), 순한 사람도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보노라면 얻는 것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극념작성) 克() 念() 作() 聖(). “난 할 수 있어!”라고(克) 생각하기만 하면(念) 그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聖) 될 수 있습니다(作). [제가 대학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우리 성관에는 오직 축산대학 학생들만 생활하고 있었지요. 우리 축대 성관 식당에는 조그만 액자가 걸려있고 거기에는 이런 짧은 글이 써 있었습니다. “아이 칸(I can)” 이라고요.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요한 복음 7 장 63 절)라고 말씀해주신 우리 둘의 주님이신

예수님! ‘주님께 청하오니,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신나게 뛰면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주님! 아멘! 박 현희 레지나와 김 상덕 아오스딩 부부 씁니다, 2013 년 5 월 17 일 부활 제 7 주일 금요일 새벽.

The them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To think might not be a great thing. However, if you think (念) “I can!”(克), you will be able to become (作) the wonderful man (聖)! (Tcheonzamun 193rd-208th)

Our Lord! You have guid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and our five children for this work! Thank you so much, amen!

ACKNOWLEDGEMENTS

The authors thank Mr Ilsoo Joseph Kim and Mrs Bohwa Maria Kim, Mr Yeonghag Park and Mrs Hilye Sarah Kim, Father Jean Blanc and Father Yang_eob Thomas Tchoi and Father Hifumi Iwazaki and Father Xavier Ha and Father Thomas Gil and Father Ikseon Gregorio Choi and Father Kyu-sik Cho and Father Yeongsig Andrea Kang, Mrs Tamako Hayashi and Mr Yoshihiro Hayashi, Professor Francine Tenaillon and Professor Nicolas Tenaillon, Professor Byeong Hwan Kim and the members of Chosun University High School, Professor Tae Song Koh and Professor Ik Suk Yun, Mrs Kisoon Cecile Song, Mrs Hiromi Nakano and Mrs Toshie Nakano and Professor Hajime Kuromiya and Professor Shigekata Yoshida and Professor Mitsuaki Ohshima and Professor Ryosei Kayama, Madame Favier and Monsieur Favier, Father Wonhwa Joseph Lee and Mrs Olivier (who likes talking) and the member of Daejeon Nae-dong Catholic Church, Father Byungdul Joseph Lee and the member of Daejeon Ludovich of Ordo Franciscanus Saecularis, Professor Byoung Hoon Park and the student of Joongbu University, the Principal Seo Gyoung Jeon and Vice-Principal O Young Kwon and the members of Jungni Middle School, staff sergeant Yong-Soon An and the truck driver who rescued Augustin, Mrs Jongsoon Julia Ko and Mr Hwancheol Peter Choi, Okja and Hwansik and Seonju-Pilseong couple and Jieun Agatha and Céline and Ailyne. The authors thank the Lord Jesus Christ so much!

REFERENCES

- Dallet, C. H. (1874).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History of Korean Catholic Church). Victor Palme. Paris. France. pp. 11-99.
- Han, S. B. (1583). Hanseogbong Tcheonzamu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written by Hanseogbong). (edited by Yeong Bae Zeong in 1984 on Songwon Publishing Company in Seoul. pp.1-136).
- Kim, S. A. (2023). My Darling Hyeonhi, I am not ashamed of hearing your words! (Tcheonzamun 769th-784th). *South Asian Res J Human Soc Sci*, 5(5), 202-205.
- Park, H. R., Kim, R., Hamon, A., Kim, S. T., & Kim, S. A. (2021). Augustin often reminds Mrs Hilye Sarah Kim his mother in-law (The Second Translation of Tcheonzamun 449th -464th). *South Asian Res J Human Soc Sci*, 3(5), 340-341.